

#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참석하시였다



## 조선로동당 창건 75돐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위대한 향도》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위대한 향도》가 10월 11일 수도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석단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함께 축포가 터져올랐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를 쉼없는 대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평우에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의 숭고한 경륜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우리리 목청껏 열광의 환호를 울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지니고 당창건 75돐을 대정치축전으로, 일심단결의 절대적힘을 다시한번 만방에 과시하는 혁명적계기로 빛내인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귀여운 어린이들이 꽃다발을 드리었다.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당창건 75돐 경축대표들, 열병식참가자들, 참관생원들, 평양시민들이 대집단체조와 예술

공연을 보았다.

노래 《우리의 국기》가 울리는 속에 공화국기와 당기가 승엄히 게양되었으며 조선로동당마크가 빛을 뿌리고 상공에는 《위대한 향도》의 제명이 새겨졌다.

출연자들은 서장 《영원한 백두의 행군길》과 《당은 우리의 향도자》,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 《격동의 시대》, 《민족의 영광》의 장들, 종장 《우리에게 위대한 당이 있다》로 구성된

공연무대를 펼치였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을 우리리 더치는 《만세!》의 환호성이 또다시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당의 령도 따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새로운 발전과 변혁의 진군길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려는 우리 인민을 고무해주었다.

본사기자

## 조선로동당 창건 75돐 경축대회와 군중시위, 청년전위들의 해불행진, 축포야회 성황리에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경축대회가 10월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5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축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축하문을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낭독하였다.

축하문은 뜻깊은 10월의 명절을 맞으며 영광스러운 당, 불패의 혁명적당인 조선로동당의 위원장이시며 주체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시고 존엄높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위대한 상징이시며 대표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전체 인민들의 다함없는 홀모와 열화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

아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삼가 드리었다.

축하문은 조선로동당을 혁명의 강위력한 정치적참모부, 위대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어 이 땅우에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대화원을 펼쳐주시였으며 최강의 힘을 비축한 영인불패의 강대국을 일떠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민족사에 특기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10월의 조국강산을 무한한 걱정과 환희로 진감시키는 조선로동당창건, 로동당만세소리는 운명의 태양이시며 삶과 행복의 전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리리 이 나라 전체 인민이 삼가 드리는 고마움의 세찬 분출이라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일원단심 믿고 따르려는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담은 공동축하문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속에 채택되었다.

이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최봉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경축대회 보고를 하였다.

경축대회는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 제8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나게 장식하며 새로운 발전과 변혁을 향하여 여세계 진군해나갈 전체 참가자들의 불타는 충성과 애국의 의지를 과시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군중시위가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군중시위 시작이 선언되자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속에 조선로동당의 품에서 영웅적인민으로 성장한 궁지드높이 시위대오가 장엄한 행진을 개시하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강대한 우리 국가의

영상인인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 시위대렬이 광장에 들어서자 축포가 터져오르고 수많은 풍선이 날아올랐으며 경축의 꽃바다가 새차게 설레이었다.

대를 이어 탁월한 수령을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이 넘쳐나는 광장에 위대한 우리 국가의 상징인 공화국기와 백전백승의 기치인 조선로동당기를 대형기폭으로 펼친 시위대렬들이 승엄히 들어섰다.

인민의 력사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행로를 보여주며 《우리 운명의 향도자 백전백승의 기치》의 글발이 새겨진 가랑뿔과 각 도 환호대렬이 광장을 굽어쳐갔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청년전위들의 해불행진이 10월 밤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 고갈 일심의 대화가 장엄히 굽어쳐간

광장으로 청년대군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불굴의 기상을 떨치며 해불대렬들이 입장하였다.

해불행진시작이 선언되자 어머니당에 대한 무한한 홀모의 정으로 뛰어넘는 불의 바다우에 경축의 글발들이 연이어 새겨지고 광장상공에서는 백전백승의 표대인 조선로동당마크를 형상한 불꽃대형이 눈부신 채광을 뿌리었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청년전위들의 해불행진은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기발을 대오앞에 펼칠 휘날리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따라 당 제8차대회를 향하여 폭풍노도 처 나아갈 계승자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영광의 10월명절을 환희롭게 장식한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축포야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휘황찬란한 레일을 앞당겨갈 인민의 드높은 리상과 열정이 경사스러운

